

올해, 미국 대통령이 담배는 마약이라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은 담배(흡연)의 인체에 대해 얼마만큼의 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규칙을 만들어서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돼.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울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네들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대로의 그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담배를 피우는 본인보다 주위 사람이 받는 영향이 더욱 해롭다고 들었다. 이른바 간접흡연의 피해다.

따라서 회사, 레스토랑, 또는 버스나 전차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음은 담배광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단지, 광고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남자배우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성인조차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가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의 학생이라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그것에 동감하실 것입니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답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광고는 물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의 이와 관련된 장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마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는 마약이다라고 여기게 된 지금 담배광고는 반드시 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